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48호
6월 6일
2020년
토요일

牧羊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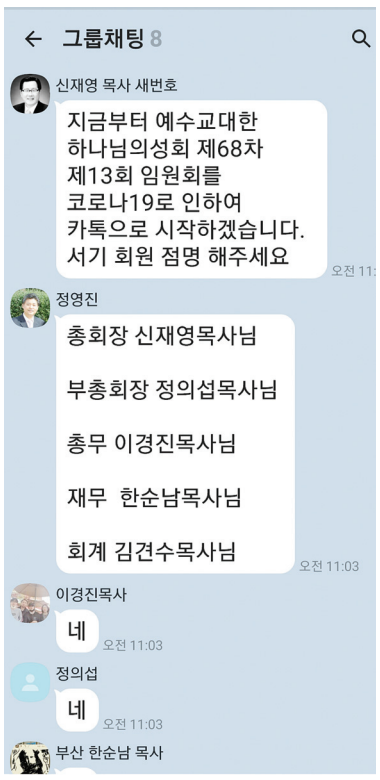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제68차 총회 제13회 임원회

코로나19 총체적 회복 위해 기도

총회 모든 일정…확산 추이 관망해 가면서 정하기로



지난 3월 개최된 임원회의 광경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13회 임원회가 지난 5월 29일(금) 오전 11시 카카오톡 회의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세계 각국이 대책에 부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열려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이경진 목사는 보고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각종 총회 일정과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견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역자사임 청원, 교역자휴직 청원 건, 지방회별 미자립교회 지원 신청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제68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6월 29일(월)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미 연기하여 개최하기로 한 69차 정기총회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관망해 가면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역경 속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성령의 도우심 간구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5월 조찬기도회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지난 5월 28일(목) 오전 7시 배방읍 소재 배방중앙침례교회(담임 김병완 목사)에서 5월 정기 월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의 사회로 지도위원 최순식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이은혜 목사의 성경봉독, 공동회장 황기식 목사(동산교회 담임)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황 목사는 시 78:4 말씀을 본문으로 '한국교회의 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루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였고 성경공부를 비롯하여 전도를 힘써 1910년 100만 구령운동과 러시아와 중국을 선교구역으로 삼아 복음화를 위하여 힘을 다하였던 것을 역사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런 것이 한국교회의 힘이었다. 현재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정확한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데 힘써야 교회를 지키고 이 땅을 온전히 복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임회장 조이철 목사의 사회로 가진 2부 보고회 및 공지사항에서 먼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코로나19라는 역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기도가 강력하기에 더욱 성령을 의지하여 교회의 부흥과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대적하자"고 전하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당부하였고 이어 이명수 아산시 갑지역구 국회의원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만드는 악법을 저지하는데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 아산시기독교연합회장 김병완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에도 방역에 협조하고 사랑의 쌀보내기운동 등 구제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위상을 높인 것을 전하며 후반기에서도 연합회활동에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충기연에 대한 장현원 목사의 공지와 아기연 원로회장 김소윤 감독이 당부의 말을 전했다.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의 사회로 가진 기도회에서는 먼저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광로 목사(지도위원),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상근 목사(지도위원),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하여' 서석웅 목사(지도위원), '아산시 지도자들을 위하여' 구자범 목사(부회장),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를 위하여' 박해서 장로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하였다.

이날 모임은 사무총장 안흥규 목사의 광고, 기념촬영, 신상우 목사(나사렛교단 원로목사회회장)의 조찬기도 후 배방중앙침례교회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조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푸른초장 맑은시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조용목 목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벧전 1:3~9)

그리스도인에게는 유별난 특성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특성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특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첫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면 복음 전도자들이 애써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였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 무덤에 장사 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모습, 하늘로 오르시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둘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는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냉대와 손실과 부당한 대우를 기쁘게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만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베드로 자신의 요청에 의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3년이 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고 체험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셋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중에 영혼의 구원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혼잡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영혼 구원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는 깊이에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영혼이 구원 받은 사실로 인한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영혼의 구원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넷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더라도 잠깐뿐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근심의 원인은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대인 관계, 임무 수행, 육신의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입니다. 근심함으로 인해 우울하고 슬퍼하는 성도를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속단입니다. 그 이유는 그 성도가 근심을 극복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근심을 재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할지라도 곧장 기쁨을 회복합니다. 둘째 이유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유는, 말세에 나타난 구원을 얻도록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유는, 여러 가지 시험도 유익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기독자유통일당은 주사파세력과 부역자들을 몰아내고자한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지난 5월 29일(금)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반공으로 건국된 나라이다. 북한과 소련공산당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 반공으로 건국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피흘려 싸운 것이 보수"라고 강조했다.

[기독자유통일당 논평 전문]

반공도 버리고 보수도 버리고 극좌 주사파 공산세력의 등에 올라탄 미래통합당의 배신과 변절이 지옥행 미래를 열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반공으로 건국된 나라이다. 북한과 소련공산당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 반공으로 건국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피흘려 싸운 것이 보수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반공과 보수를 버린다고 선언함으로써 주사파 공산세력에게 백기투항을 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세력에게 항복이라는 굴욕을 가져다주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권력과 일신의 안락뿐이요, 소신도 원칙도 없이 금뱃지에만 눈이 먼 웰빙 금뱃지 장사꾼들의 집합소 미래당이 드디어 커밍아웃을 하고 주사파 공산세력과 통합의 대문을 열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전신 정당들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주는 정당으로 믿고 표를 주어 대신 싸워달라고 지지해왔다. 그러나 국민은 배신당했고 그 배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패망이 시작되었다. 자유월남이 공산월남에 패망한 것은 자유월남에 기생한 베트공의 간첩들과 비겁한 기득권세력들의 배신과 항복 때문이었다.

반일을 외치며 친일청산을 읊어대는 공산 주사파 무리들에게 묻고 싶다. 공산주의 탈을 쓰고 조선왕조를 계승해 3대를 세습해가며 북한주민을 수백만 명이나 굶겨 죽이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민족상잔의 공산화전쟁을 일으킨 김씨 왕조에게 부역하고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상납한 자들은 과연 이완용보다 역적 짓의 농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가?

주사파 공산세력이 백전노장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 모시지 못하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만 봐도 현 정권은 주사파공산정권이라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6.25전쟁은 반공 자유수호 전쟁이었고 백선엽장군은 반공 자유수호전쟁의 영웅이다. 백선엽 장군조차 갈수 없는 현충원이라면 그 현충원은 이미 현충원이 아닌 것이다. 한줌도 안 되는 공산 주사파 세력에 겁을 먹은 미래통합당 배신자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옥행으로 과속 운행 중에 있다. 가장 평화를 많이 떠들어대던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격렬한, 그리고 끔찍한 피의 내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공산 주사파세력과 그 부역자들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혈전도 각오할 것을 선언한다.

국민들이여 일어나 뭉치자.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과 함께 목숨보다 소중한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유는 진리이고 정의이다.

2020.5.29
기독자유통일당

제8회기 시작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는 지난 5월 21일(목) 오후 7시 서울역 뒤(서부역)에 위치한 '(사)참좋은친구들'에서 어려운 이웃인 노숙인들과 함께 밥을 나누는 행사로 제8회기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세기총 제8-1차 임원회의를 마친 후, 임원회의에 참석한 임원과 해외 지부장들이 함께하였으며, 예배는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의 사회로 대표기도에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가, 식사기도는 콜롬비아 지부장 김선훈 목사가, 인사 및 광고를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맡아서 진행했으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설교말씀을 전하고 (사)참좋은친구들 이사장 신석출 장로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눅 10:36~37 말씀을 본문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기총은 매년 회기의 시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협력하며 돕는 단체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예배 후 코로나19로 인해 준비된 도시락과 국을 세기총 가족들의 봉사로 노숙자들에게 나누었으며, (사)복음의 전함(이사장 고정민 장로)에서 제공한 머리빗을 선물로 전달하였다.

세기총은 이날 제8-1차 임원회에서는 8차 정기총회에서 위임한 8차 임원을 확정하였고, 세기총 지부 확장을 위한 방안과 계획을 처리하였으며, 정관 수정을 위하여 이사회와 대표회장단에게 위임을 하고, 젊은 목회자 참여를 위한 기구를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교회 회복 위한 40일간 릴레이 기도

한국교회연합 9-3차 임원회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5월 19일(화) 오전 11시 군포제일교회에서 제9-3차 임원회를 열고 오는 6월 1일부터 40일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한교연 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의 모든 주일 공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된 후 다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국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40일간 릴레이 특별기도회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제21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여 지났는데 아직도 일부에서 사전선거 부정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선관위가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큰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또한 대한예수장로회 글로벌선교 총회(총회장 정도출 목사)의 교단 명칭 변경을 허락했으며, 3년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개 교단과 3개 단체에 대한 회원권 상실 처리는 차기 임원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한기총 비대위 중심 정상화 위한 행동 나서

"한국교회와 국민에 공식 사과 드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엄기호 목사-이하 한기총)가 정상화를 위한 기류를 본격 형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기총 비대위는 지난 5월 21일(목)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광훈 목사의 정교분리 원칙에 벗어난 정치 행위와 각종 비난, 막말, 거짓말, 보수와 진보의 격돌을 선동하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해 신성모독에 이른 전광훈에 대해 한기총 소속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국민과 기독인들에게 통곡하는 심정으로 회개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광훈의 탈법적인 한기총 운영에 대해 대표회장직무정지가처분 인용에 공정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세 분의 판사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또 "한기총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야 한다"며 "한기총에서 더는 정치 목사가 배출되거나 틈타지 않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채널방송, '6.25전쟁 70주년 특별 영상' 무료 배포

2편, 한국교회를 위한 나눔 영상으로 제작

C채널방송이 6.25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특별 영상을 제작하여 한국교회에 무료로 배포한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C채널방송이 미디어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마련된 특별 영상은 총 2편으로 제작되었으며 1편 〈지켜야 할 교회〉(6분용, 3분용)는 6.25전쟁의 아픔과 부산을 중심으로 전쟁 속에 펼쳐진 기도회가 이끈 희망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한다. 2편 〈두고 온 교회〉(3분용)에서는 북한에 고향을 둔 원로 목회자들의 기억을 통해 전쟁의 아픔과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회복의 소망을 담았다.

공식 사망자 수만 137만 명. 집계되지 않은 수를 더한다면 한반도에서 3년 간 일어난 전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어 구름 같은 피난민들이 모여든 곳,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역사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피난촌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피난민들로 서울과 평양 중심의 복음의 진원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당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회개'가 불일 듯 일어났고 부산초량교회와 부산중앙교회를 중심으로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때와 같이 통회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며 2주일 간 기도회가 이어졌다. 초량교회의 한상동 목사와 고려신학교 교장 박윤선 목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기도회에서 박윤선 목사는 자신의 신사참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고 이것을 들은 기도회 참석자들은 한사람씩 뜨거운 회개기도를 이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 생명나눔 약속

온라인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동년대비 276% 늘어나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가 올해 온라인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4월 30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로 작년 3,648명에서 올해 10,961명으로 무려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 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어 단체 및 학교 등에서 매년 진행되던 장기기증 캠페인의 취소가 줄을 이었다. 이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는 이들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으나 따뜻한 나눔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 오히려 지난해 대비 온라인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3배가량 늘어났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위 '집콕'을 하며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자제하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생명나눔을 약속한 것이다.

큰 폭으로 온라인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늘어난 데에는 미디어를 통해 장기기증 이야기가 다수 소개된 것과 사순절을 지나며 경건한 마음으로 생명나눔을 결심한 성도들의 참여가 잇따른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협의회가 되자"

(사)한국개교협 평안교회에서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이하 한개교협)는 지난 5월 18일(월)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 소재 평안교회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1부 예배는 한개교협 이사 임정태 목사의 사회로 임정태 목사의 기도,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고전 13:1~13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박형렬 목사는 설교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길은 첫째, 천사의 말보다는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예언의 능력과 믿음 안에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 모든 구제와 내 몸을 내어 주어도 '사랑'안에서 해야 한다."라며, 고린도교회는 외식적이며 거짓된 부요함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허전한 것, 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우리 협의회는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협의회로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협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세전 목사가, '(사)한개협 발전을 위하여' 이영춘 목사가 기도한 후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2부 회의는 이사장 양정섭 목사를 의장으로 회무처리에 들어가 절차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고 총무이사인 김영의 목사가 회원 점명하니 정족수가 되므로 의장이 개회됨을 선포했다. 대표회장은 박형렬 목사가 유임되었다.

카이캄, 제41회 목사안수식 열고 139명 사명자 배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송용필 목사/ 이하 카이캄)가 지난 5월 25일(월) 서울 양재동 햇불선교센터 사랑성전에서 제41회 목사안수식을 열고, 139명의 사명자를 배출했다.

앞서 코로나19의 대대적인 확산으로 예정된 안수식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는 카이캄은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맞춰, 엄격한 방역조치 속에 조심스레 안수식을 개최했다.

안수식 행사장에 들어가기까지 2차례 이상의 발열 체크와 인원 점검을 거쳤으며,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행사장 내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엄격히 지켜졌다. 안수식은 카이캄의 최대 행사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키 위해, 안수자와 안수위원, 본부 관계자들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출입을 통제한 채, 약소하게 드려졌다. 무엇보다 행사가 열린 햇불선교센터 사랑성전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외부 행사를 진행할 정도로, 철저한 통제가 이뤄졌으며, 이날 안수식을 위해 이틀여 간 꼼꼼한 방역을 실시했다.

연합회장 송용필 목사는 "목사가 되는 일은 인간의 열정이나 소원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면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하며, 예배 인도자가 되기 이전에, 예배하는 목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생명 나눔 업무협약

CTS 본사와 전국 21개 지사 임직원 300여 명 참여 예정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와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 나눔 업무협약식을 지난달 19일(화) 오후 CTS기독교TV 본사에서 진행했다.

협약식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조남선 본부장과 CTS기독교TV 윤문상 부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진행됐다.

업무협약 내용에는 CTS 전 직원들이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에 동참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국민들을 격려하고 국가적으로 부족해진 혈액 공급을 돕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앞으로 CTS 본사와 전국 21개 지사 임직원 300여 명은 생명 나눔 헌혈 챌린지에 참여할 예정이다.

협약식 전에 헌혈 챌린지에 참석한 윤문상 부사장(CTS)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혈액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기사를 접하고 이웃 사랑과 생명 나눔을 위한 헌혈행사를 하기로 했다."며 "이 캠페인을 통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과 이웃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협약식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회 임원 부부 수양회 가져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5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임원 부부 수양회를 가졌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된 상황이 아니라 다소 부담스러운 일정이었지만 총무 김영호 목사의 지혜롭고 세심한 스케줄 구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졌다.

특히 제주도의 별미인 왕갈치 정식과 흑돼지구이 그리고 오월의 싱그러움과 바닷바람이 어우러진 해변에서 싱싱하고 푸짐한 횟집의 별미로 채웠던 포만감은 지금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진다. 제주의 자랑인 비자림길 산책과 섭지코지, 그리고 휴애리 수국축제장, 곶자왈 공원탐방 등은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 버리기에 충분한 소중한 힐링의 시간들이었다.

한국교회가 지난 몇 달간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예배문화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면서 준비되지 않은 온 오프라인의 예배를 시도했지만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이번 임원수양회는 참으로 유익한 시간들이었고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이어진다 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영·육간 넉넉한 에너지를 충전한 기분 좋은 수양회를 추억으로 남는다.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지방회가 되길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5월 18일(월) 오전 11시 전남 광양시 중마동 소재 순복음광양교회(담임 유용근 목사)에서 5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배용환 목사(순복음전원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잠 1:10-19 말씀을 본문으로 '동행'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탐내지 않는 교역자가 되어 계속해서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 가는 전라지방회가 되도록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교단 총회와 교단 임원과 정책위원장 목사님과 교단 산하 지방회와 모든 지교회의 발전을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증경회장 김갑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순복음광양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애찬을 함께 나눈 후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월례회 갖고 주 안에 거하는 삶 위해 기도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심혜원 목사)는 지난 5월 26일(화) 생명나무교회(윤경영 목사 시무)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지방회 서기 김훈배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심혜원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요일 2:23~2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주 안에 거하는 삶' 이라는 제목의 설교, 지방회 재무·회계 박윤석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김준곤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에서는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으며, 생명나무교회에서 풍성한 애찬을 대접하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정영진 목사)는 지난 5월 21일(목) 오전 11시 순복음복있는교회(담임 황연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박영옥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안병섭 목사(순복음창성교회)의 대표기도, 박영옥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마 7:21~23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천국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 후 옥경숙 목사(물댄동산교회)의 헌금기도와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는 특별한 안건이 없으므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나라와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념사진 촬영 후 순복음복있는교회 황연선 목사가 제공한 식사를 하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고영권 목사)는 지난 5월 18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1부 예배는 강광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경옥 목사의 대표기도, 정환무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고영권 목사의 고전 4:1~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목회자의 위치' 라는 제목의 설교, 홍찬일 목사의 헌금기도, 한순남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에서는 각종 지방회무를 처리하고 자리를 옮겨 순복음한세움교회와 지방회장 고영권 목사가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합천 황매산에서 야유회 갖고 하나님께 감사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고영권 목사)는 지난 5월 28일(목) 합천 황매산 일대를 둘러보며 야유회를 가졌다.

황매산 일대의 수려한 경관을 구경하고 오찬을 갖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만물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지방회원들은 이번 야유회를 통해 더욱 단합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목회에 쉼을 얻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성령충만,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 위해 기도

나라사랑동지회 제65회 월례기도회, 정형기 목사 축복기도

나라사랑동지회(대표회장 손광기 장로) 제65회 월례기도회가 지난 5월 26일(화) 오전 11시 강북로교회에서 열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공동회장 조성재 장로의 사회로 시작되어 공동회장 김헌 장로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이사팀의 특송, 정병윤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행 13:4-12 말씀을 본문으로 '역전의 하나님'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들로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아골 골짝 빈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 복음의 물결이 충만한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물결이 넘실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셔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는 믿음으로 역전의 용사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사무처장 김경 장로의 헌금기도, 음성지부장 정형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2부 기도회로 이어졌다.

이사 이상명 장로의 사회로 열린 기도회는 이사 김봉준 장로의 기도인도가 있었으며 김 장로의 인도로 모두가 합심하여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했다. 이사 노명수 장로의 마침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고 3부 월례회 보고 및 인사의 시간은 대표회장 손광기 장로의 인사말, 신입회원 소개 및 임명장 수여, 재정부장 이상덕 장로의 회계보고, 사무총장 박재우 장로의 광고, 애국가제창, 감사 설형팔 장로의 인도로 만세삼창, 황행이 권사의 폐회 및 오찬 식사기도로 기도회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나라사랑동지회는 애국가부르기운동을 필두로 태극기 달기운동, 무궁화꽃 사랑하기 운동, 건국일 제정 및 건국대통령(이승만) 1천만 서명운동, 이승만 대통령 영화제작 협력, 바른 역사교과서 참여, 동성애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이슬람문화 침투 저지 등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뜻을 모은 단체로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상호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독단체다. 회원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가일층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욱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mok2677@kakao.com

생명의 말씀

목회사명을 망각하지 맙시다!

(요 21:1~19)

권우석 목사
· 경남지방회 회장
· 창원순복음교회 담임

하나님의 부르심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말씀하시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였으며,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깁는 어부들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을 때 지체없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따르며 여러 가지 귀한 말씀으로 기도훈련과 함께 양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는 막중한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소명과 사명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 권세 영광 누릴 줄 생각했는데 다 물거품처럼 됐다고 느끼자 그들은 무서워하며 의심하며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엉거주춤거리는 동안 예수님의 지상명령보다는 몇 년 전 그물을 던지며 고기잡던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3) 앞장서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자 6명의 제자들이 동조하여 함께 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자신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날이 갈수록 점점 자신들이 바라는대로 가지 않고 고난과 끌내는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의 죽음을 바라볼 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옛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아 고기 잡으러 가는 그들은 환상, 기쁨, 기대에 가득 부풀어 배에 올라 그물을 던졌지만 결과는 더 큰 실망만 찾아왔습니다. 3~4절에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고 날이 새어갈 때까지도 고기 한 마리 못잡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닷가의 누군가가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6)

7명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십, 수백번도 더 그물을 던졌어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자연스럽게 의심없이 따랐을 뿐인데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으면서 큰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과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시간은 불과 몇 분 안되는 시간인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본 순간 그 말씀하시던 분이 바로 자신들을 부르셔서 고기나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시라고 요한이 먼저 알게 되고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바닷가로 나오게됩니다.

여호와 이레

더 놀라운 사실은 바닷가에 나와 보니 제자들이 밤새 고기잡느라 지쳐있고 잡은 고기가 없었으니 배가 고팠을 것이고 밤새, 그리고 새벽 차가운 공기에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온 제자들도 있어서 모두 춥고 배고프고 지쳐있는 것을 아신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도 구워놓으시고 떡도 준비하여 제자들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알게 해주시려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10)고 말씀하십니다.

목회는 사람의 지혜나 배운 실력이나 돈으로 되는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때마다 일마다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전도의 문이 막혀가고 기독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 외면할지라도 영원히 변치않는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목회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명감당 못하고 재판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받아 죽을지언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깊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상처를 치료해주시려고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중심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고 사명감당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회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1) 내 어린 양을 먹이라(15)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같고 믿음이 아직 부족함이 많은 미성숙한 성도들을 단단한 음식인 밥으로 아니하고 마치 젖으로 양육하듯 신령과 순전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고전 3:2, 히 5:12-13. 벧전 2:2).

2) 내 양을 치라(16)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릇되고 비뚤어진 길로 가지 쉽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의 영혼의 감독자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벧전 2:25).

3) 내 양을 먹이라(17)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잘 자라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중직자들, 직분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잘 양육해야 합니다.

결론

주님은 베드로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19)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내 가는 길을 그 무언가가 막을지라도, 한없이 추락되는 낙심이 찾아와도,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도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지만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목회사명 잘 감당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영광스런 초청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정

박막례 할머니, NGO에 기부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충관, www.gfound.org)은 인기 크리에이터 박막례 할머니가 양육시설 특식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막례 할머니는 "양육시설 아동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특식비를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대한성서공회, 정하봉 신임 이사장

대한성서공회 제133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28일(목) 오전 서울 서초동 성서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에는 정하봉 목사(진관교회 원로)가 선출됐다. 이 외에 부이사장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 서기 양병희 목사(영안장로교회), 회계에 김경원 목사(서현교회 원로)가 각각 선임됐다.

침신대, 헌혈 릴레이 캠페인

침례신학대학교(총장 김선배)는 지난 6월 1일(월) 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헌혈 릴레이 캠페인, 10만 km의 기적'을 실시했다. 김선배 총장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위기 속에 우리 대학의 헌혈 캠페인 릴레이 운동을 시작으로 우리 혈관의 길이만큼 전국으로 이러한 사랑 나눔 운동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온라인으로

목회자사모신문과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27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다시 주님 앞에'이다. 목회자사모신문 발행인 설동욱 예정교회 목사는 "오직 사모님들만을 위한 축제의 세미나에 참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무당굿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와 온 나라가 큰 피해를 입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진, 정부와 방역 당국, 그리고 전 국민들이 '생활거리두기'를 통하여 역병(疫病)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지난 5월 28일 저녁 7시 30분에 지방의 무당들을 서울의 한복판인 역삼동에 불러들여 '굿판'을 벌였다고 한다.

개최하는 이유로는,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덜고, 역병을 물리치고 국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귀신을 불러들이고 달랜다고 현대병인 바이러스가 물러간다는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행사를 외교부, 문화재청, KB국민은행이 후원한다고 한다. 또 이 행사에는 문화재청장,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그리고 문화재재단 이사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제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겠다는 생각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방의 무당들을 서울로 불러서 '굿판'을 벌인다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간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우매한 일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외교부까지 가세하여 '굿판'을 벌이는 것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다고 본다. 한국이 무당으로 하여금 역병을 물리치려 한다는 미개국(未開國)으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는 국가기관들이 불안한 국민의 마음과 정서를 이용하여, 혹세무민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조선말에 명성왕후는 국고를 탕진하면서까지 무당들을 불러다가 '굿판'을 벌이므로 국가가 망하는데 일조한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상이나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뿐이다.

6월에도 이어간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굿판을 걷어치우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국민의 단합된 힘을 통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상과 귀신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

우상(偶像)과 미신(迷信)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쓰러지게 되었다. 그들이 말과 행위로 여호와를 대적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이사야서 3장 8절-현대인의 성경)

성과학연구협회 성명

민성길 교수 // 성과학연구협회 회장 연세의대 명예교수

총신대 반지성(反智性)적 해임안을 철회하라

지난 5월 18일 총신대학교는 신학과 이상원 교수의 수업 내용의 일부를 성희롱 발언이라고 문제 삼아 해임 처분을 내렸다. 2019년 12월 13일 교내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이미 무혐의로 판단된 사안을 12월 19일 관선이사회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2020년 3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부의 불이익을 받거나 학생들이 총장을 인정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징계 제청을 요구했다고 밝힘으로써 징계가 외부의 눈치 보기였음을 드러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반지성적으로 눈치를 보며 결정된 징계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다음을 요청한다.

첫째, 의과학적인 용어를 성희롱의 단어라고 주장하는 미숙함을 그치라.

대학은 대학생을 위한 지성의 강단이다. 초등학교 성교육 시간이 아니다. 동성 간 행해지는 성행위의 문제점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를 성희롱이라고 지목하면 어쩌라는 말인가? 성(性)과학 또는 성(性)윤리 학자들의 많은 용어를 희롱거리로 삼을 것인가? 교수가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할 때마다 의과학적인 신체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매번 진심어린 사과를 하란 말인가? 교권 침해를 넘어 학자들의 용어를 오염시키는 미숙한 짓을 그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학자의 지적 양심을 2차 가해로 폄훼하는 것을 그치라.

대학교수의 영향력은 그의 학생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의 삶 전반에 걸치고, 강의가 전해지는 시대 전체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 학자가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회의 상식을 넘어선 사과 요구로 인해 올바른 지식 전하기를 멈춘다면 이는 학자의 양심을 저버리는 직무 유기이다. 이상원 교수는 문제로 지목된 강의 내용과 설명을 대자보를 통해 정확하게 게시하고 동성 간의 성관계에 따른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학자의 양심적 노력을 2차 가해로 폄훼하는 행위를 당장 그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상과 내용이 모호한 징계를 즉시 철회하라.

시민 사회가 징계안이 번복된 것에 항의하여 학외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가 학내 문란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 교내 징계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시민사회로 향한 것인가? 동성 간 성행위가 일으키는 문제점을 설명하는 의과학자들을 징계 대상으로 고려하려 하는가? 대학의 지성이 의심받게 하여 사회전체에 대해 신뢰를 실추시킨 징계위원회의 반지성적 결정이야말로 징계의 대상이 아닌가? 징계의 대상과 내용 모두가 방향을 잃어버린 모호한 징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5월 21일
성과학연구협회

포커스 – 차별금지법

길원평 교수 // 부산대학교 교수

가장 현명한 방안은 강력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

동성애 차별금지법 관련 법제정에 반대해온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적지향이 삭제된 차별금지법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길 교수는 "동성애 옹호 활동을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맡기면, 공권력(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으로 동성애를 옹호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전하고 "차별을 받았는지 조사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이기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했다. 길 교수는 그 예로 지난 2013년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 마지막의 '등'(김재연 발의안) 또는 '그 밖의 사유'(최원식, 김한길 발의안)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사유에 있는 성별을 젠더(gender)로 해석하고, 젠더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길 교수는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개정하는 것이 쉽다. 제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해야 하지만, 개정은 공청회가 필요 없다"며 "영국의 경우에 2006년 평등법이 만들어질 때에 성적지향이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고, 고용에 대해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2007년에 고용에 대한 성적지향 차별금지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10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강력한 평등법으로 개정되었다. 결국 2013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일단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후에 개정을 막기는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안은 강력하게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목양산책

이효상 //근대문화진흥원 원장

책 읽는 즐거움에 빠지다

코로나 시대, 다들 궁금한지 뭐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다. 비대면과 차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책 읽기'의 즐거움에 푹 빠져 사는 것이다. 좋은 책을 접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더 이상 '독백'이 아닌 상호소통이 되고, 거꾸로 좋은 관계에 익숙해진 이들은 바람직한 '독서'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매일 신문과 성경을 정독하고 책 한 권 정도를 읽으려 한다. 이미 벌어져서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알려 주는 것이 신문(新聞)이라면, 성경은 과거에 쓰여진 책이지만,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법에 따라 금도 되고 은도 되는 것처럼 하루의 생활을 신문과 성경으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지의 문제는 본인의 선택이다.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이라고 말했던가. 신문은 현시대의 삶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이 현시대의 인간 사회의 모습이다. 이 신문과 책을 통해 인간사의 사고방식, 인간의 고통, 사유방식, 문제의식을 캐치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 한다.

독서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특히 유아와 청소년의 독서는 그들에게 많은 지적 소산을 안겨줌과 동시에 다양한 창조력을 키우고 풍요로운 감성을 보살펴준다. 하지만 현실은 스마트폰이나 방송 미디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독서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이라면, TV 앞에서는 2시간 이상이라고 한다.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기 힘든 세대를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된 신인류 '포노사피엔스'는 아닌가.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등 다양한 융합을 통해 시대를 읽는 혜안을 가지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책읽기'이다.

"오직 독서 이 한 가지가 큰 학자의 길을 좇게 하고,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다움을 만든다."는 다산(茶山) 선생의 말처럼, 선생의 첫 번째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배생활 중 그의 방을 책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1,304권의 책을 구비했고 선생의 책 읽는 삶이 그러했다. 평생 저술한 500여 권의 책을 봐도 얼마나 많은 책 읽기와 연구 집필에 매진했는지를 보여준다.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시는 다산 선생의 얼과 정신을 담은 '정약용박물관'에 이어 '정약용도서관'을 개관한다. 국내 6번째 규모의 22만3천 권의 장서를 갖춘 지식의 보물창고(寶庫)이다. 경기도민으로 자랑스러울 정도로 참 아름다운 명품도서관이다. 찾는 이들이 즐거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책읽기는 더욱 깊어지고 즐거워진다.

우리나라 선진들은 일찍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였다. 집을 나가서는 천하의 뜻있는 벗들과 사귀고, 집에 들어와서는 옛 성현들의 책을 읽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신라시대에 관리를 등용할 때에는 그 사람의 독서 범위와 수준을 헤아려 인재를 등용하는 독서삼품과를 설치하여 독서를 권장하였다. 고구려에서는 태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을 두어 경학(經學: 사서오경을 연구하는 학문)·문학 방면의 책을 강독하게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이미 우수한 종이를 만들고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성경보다 빠른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드는 등 인쇄술의 발달로 '직지'와 '자치통감' 등 많은 책들을 간행하였다. 성종 때는 수서원(修書院: 학교와 도서관을 겸한 기관)을 창설하고 역사책을 등사하고 소장하게 하여 열람하도록 하였다.

책 읽기(독서;讀書)는 가장 넓은 세계를 가장 손쉽게 경험하고 상상하게 만들어 주는 가장 좋은 스승이자, 자기성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삶에 대한 통찰력과 안목을 길러준다. 또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나라의 책 읽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성리학이 들어온 뒤이다.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한 신흥 사대부계층이 역사담당계층으로 성장해 간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이르러서였다. 이 사대부들은 박지원(朴趾源)이 "독서를 하면 사(士)요, 정치에 종사하면 대부(大夫)이다."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평소에는 유가경전과 사문·사서(史書) 등을 읽으며 한문교양을 쌓다가 기회가 닿으면 정치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이들 선비계층은 주업이 독서였고, 독서를 통해 그들의 덕행과 학식을 쌓았던 것이다.

이런 책 읽는 문화는 유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들의 독서토론과 연구발표도 자연히 유가적 교육기관인 서당·서원·향교·성균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조선조는 유학을 건국이념으로 하고 역대의 임금들이 학문을 장려하였으므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서적이 수입되고, 국가적인 도서편찬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다. 민간에서도 수많은 문집들과 사서들이 간행되었다.

또한, 집현전·홍문관·규장각 같은 일종의 도서관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문헌들을 수집, 정리, 보관하여 당시 관료지식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책 읽는 문화를 찬란히 꽃피웠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책 읽는 현실은 어떠할까. 1년간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의 비율은 성인이 60%, 학생이 92%로 각각 나타난다. 성인의 40%는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는 말이다. 참으로 '책 안 읽는 한국인'이다.

1909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독일의 물리화학자 프레드릭 오스트발트는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책 읽기'라는 공통점을 찾아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그 세계는 책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시인 볼테르가 말했던가. 하루 20분만 책 읽기에 투자하면 안 될까. 1년이면 300페이지짜리 책 12권을 읽을 수 있다. 하루 20분 책 읽는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우리의 삶과 지성을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보는 건 어떨까. 건강한 지성의 인생의 코드,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남양주시에 정약용도서관이 지난 5월 개관했다.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27인 성명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학교를 섬겨오신 이상원 교수님께 최근 내려진 해임징계로 인해 총신 공동체 안에 다시 큰 아픔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총신대학교를 바라보는 교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 한국교회 전체의 우려 앞에서 우리들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로서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우리 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육의 목적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고 충실하게 증거할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고 믿습니다(딤전 2:1~2). 또 우리는 우리 학교가 바른 신학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고전 10:31~33)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한다고(갈 2:20) 고백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은 이 고백 위에서 '청교도적 경건성'과 '개혁사상'에 입각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에서 사역할 목회자들'과,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에 헌신한 선교일꾼들'과, '기독교 문화창달에 기여할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무오한 신구약 성경의 진리에 따라 '항상 개혁되는 교회(ecclesia semper reformanda)'를 세우기 위해 총신대학교가 지난 1세기가 넘도록 표방해 온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서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대로 삼고 있는 개혁신학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창 1:27),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의 본래의 모습과 남녀 양성 간의 바른 관계가 타락을 통해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왜곡된 모든 인식들 역시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하며(롬 1:26~27),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가르치는(엡 1:7) 성경의 진리에 충실한 신학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신학적 입장을 견지하며 교육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반은총의 방편들이 우리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 교수님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천 명의 제자들과 후학들을 가르치시며 우리 교단 교회 및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 보여주신 신학의 교훈과 신앙의 귀감을 생각할 때, 총신대학교의 구성원들뿐 아니라 우리 교단과 많은 교회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수님의 해임을 수용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 동안 이상원 교수님께서 학교를 위해 기여하신 업적과, 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정체성, 그리고 향후 신학 교육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 주실 것을 이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총신대학교를 사랑하고 염려해주시는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앞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 총신대학교를 바른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 위에 다시 세워주셔서, 총신대학교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는 사명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신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육의 목적을 더 확고히 지켜가고, 함께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통치하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5월 23일

강웅산 김광열 김대웅 김대혁 김상훈 김성태 김영욱 김요셉 김희석 문병호 박영실 박용규 박철현 박현신 배춘섭 양현표 오성호 오태균 윤영민 이관직 이상웅 이상일 이풍인 정원래 조호형 (가나다 순)

"이상원 교수 해임, 동성애자의 핍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총신84회, 샬롬총신, 총신대를사랑하는국민모임 등 집회

총신84회와 샬롬총신, 총신대를사랑하는국민모임(총사국), 레인보우리턴즈,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등이 참여한 이상원 교수 해임 반대 집회에서 염인섭 원장은 "이상원 교수님은 그동안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이 이단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밝히신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신학교 교수님이셨다"며 "동성애 신학이 당연히 이단인데, 그것을 밝혔다는 이유로, 또한 동성애가 신학적으로 분명한 죄임을 알리셨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에게 표적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상원 교수의 강제 해임 사건은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 옹호자의 핍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상원 교수의 강의가 사라져선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달 1회씩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학교 대책위원회는 이상원 교수의 강의에 논란이 일자 강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강의가 성경적, 의학적으로 정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소지가 없다고 이미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총신대 관선 이사회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이상원을 해임하는 결정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동성애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강의를 성희롱, 성차별로 판단한 총신대 이사회의 해임 철회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염 원장은 "동성애의 위험성,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끼치는 동성애의 해악을 알리는 많은 인물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공격은 우리를 더 결속시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엔 총신84회와 샬롬총신, 총신대를사랑하는국민모임(총사국), 레인보우리턴즈,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당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총신대는 이상원 교수 해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5월 18일 총신대학교는 이상원 교수의 '인간론과 종말론',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강의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설명한 부분에 대해 '성차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이상원 교수 해임을 결정하였다.

애초 학교대책위원회는 이상원 교수의 강의에 대해 논란이 일자 강의내용을 검토하여 그 강의가 성경적, 의학적으로 정당하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소지가 없다고 이미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총신대 관선 이사회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결국 '이상원 교수 해임'이라는 결정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레인보우 리턴즈 이하 총신대학교와 한국교회를 아끼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2020년 5월 23일 이상원 교수의 해임 건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게 되었다.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에 의거, 동성애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 성차별'로 판단한 총신대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존 칼빈과 개혁주의신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총신대학교가 대한민국에 불어오는 동성애의 흐름을 과감히 끊어내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상원 교수의 해임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총신대학교의 재단이사회는 금번 사안을 통하여 학교의 설립이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세워진 총신대의 개혁주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2020년 5월 23일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8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8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6월 29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6월 18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6일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신 재 영
총 무 목사 이 경 진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연합회장 상 임 회 장 사무총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김병완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안흥규 목사

고 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
자 문 위 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의장),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대 표 회 장	진등용 목사
본 부 장	이두영 목사 실 무 회 장 박노섭 목사 사 무 총 장 안흥규 목사
상 임 회 장	최규명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공 동 회 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지 도 위 원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부 회 장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윤경헌 목사, 길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장헌원 목사, 곽일귀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이기언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오세환 목사
사 무 총 장	안흥규 목사 총무 정진학 목사 서기 최순식 목사 회계 김이례 목사 재무 곽인숙 목사,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협 동 총 무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곽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후원회 회장	정해곤 장로
후 원 회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흥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탁 장로 (外 각 교회 장로)
후 원 계 좌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기독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총괄경영주
박 인 안 장로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생화사진틀(선택형)

▲45인승 버스

▲최고급 리무진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벧엘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북된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견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0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진등용 목사 (새소망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임용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벧엘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북된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견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서북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묵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된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찬미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벧엘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한교회)	박홍렬 목사 (오성사랑교회)

실무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서 기	재 무	회 계	감 사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성기찬 목사 (동울산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 (밝은빛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신교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조길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우광덕 목사 (해마루대광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하은교회)	이화숙 목사 (전주순복음우리교회)	홍현자 목사 (시랑과평화교회)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된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주창민 목사 (순복음벧엘교회)	배용환 목사 (순복음전원교회)	옥보애 목사 (소망농아교회)	기호선 목사 (괴산순복음교회)

정회원	정회원
정에스더 목사 (예수향기기도원)	이형은 목사 (은혜로교회)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ASSEMBLIES OF GOD

문의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헐몬산기도의집교회 부흥회

말씀의 생활화 · 기도를 살리자 · 함께 모여 기도하자

일시

2020년 6월 29일(월)~7월 2일(목)
저녁 7시 30분, 오전 10시 30분, 새벽 5시

강 사

성기찬 목사
방어진순복음교회
예하성부흥사회 실무총무

담 임

김남순 목사
헐몬산기도의집교회 담임

원장 : 김남순 목사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 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장소 및 문의

헐몬산기도의집교회(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백곡리 산 113번지) 010)2415-2062

존스 홉킨즈대 등 세계적 명문대 입학 쾌거

기독명문 글로벌선진학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어, 기도 당부

글로벌선진학교(이사장 남진석 목사, 이하 GVCS)는 지난 5월 25일(월) 오전 11시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존스 홉킨즈대학을 비롯 코넬대학교, UC버클리 대학교 등 세계적 명문대학 진학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세계적 분위기 가운데도 최선을 다한 결과물에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가을학기 전국순회 입학설명회 일정 및 GVCS의 각 캠퍼스 대학진학결과를 상세히 발표했다.

이날 이사장 남진석 목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국에서 지혜와 통찰력을 지닌 글로벌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GVCS가 100억의 지구촌을 섬길 하나님을 아는 글로벌 인재양성 사역을 지속하는 당위성이 증명되고 있다"면서 교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다.

또 남 이사장은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높은 랭킹의 대학에 진학하는 쾌거를 이뤘다. 약 150명의 학생들이 모두 100억이 넘는 장학금을 약속받았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남 이사장은 코로나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미국 펜실베니아캠퍼스에 우리 기숙사가 제일 안전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학교 자체를 외부와의 접촉을 봉쇄하고 철저한 방역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미국의 초중고가 다 문을 닫았는데, 우리 학교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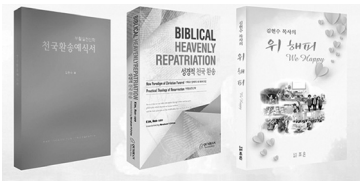
또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면서 부모들이 참관자로서 GVCS의 우수성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며, "언택트 시대를 극복할 인재가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모집 중인 이번 가을학기에는 7~10학년(중1~고1)에 해당하는 학생이 음성과 문경캠퍼스에 편입생으로 지원할 수 있고, 미국 펜실베니아캠퍼스에는 7~11학년(중1~고2)에 해당하는 학생이 신·편입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070-7709-2245 www.gemgem.org

김헌수 목사 저서 출판 감사예배

천국환송예식서·성경적천국환송·위해피(We Happy)



김헌수 목사(투헤븐선교회 대표, 꿈너머꿈교회 담임)의 저서 ▲천국환송예식서 ▲성경적천국환송 ▲위해피(We Heppy) 출판기념예배가 지난 5월 19일(화) 오후2시 용인시 기흥구 소재 리비다하우스에서 드려졌다.

꿈너머꿈교회·천국환송지도사 모임이 주최한 이번 출판기념회는 1부 감사예배, 2부 출판기념회, 3부 코이노니아(교제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는 조정민 목사(천국환송지도사 1기) 사회로 로시열 목사(2기)의 기도, 황기현 장로(4기)의 성경봉독, 김진호 목사(기감 전 감독회장)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의 설교, 조성호 장로(4기)의 광고, 이귀범 목사(8기)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출판기념회는 송기섭 목사(천국환송지도사 8기)의 진행으로 김소임 교수의 피아노 특별연주, 유은주 목사(5기)의 내빈소개, 안진식 목사(8기)의 환영사, 최현정 국장(1기)의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저서소개는 곽현복 목사(3기)가 천국환송예식서를, 김권철 목사(6기)가 성경적천국환송(개정한영판)을, 박찬영 목사(5기)가 위해피를 소개했으며, 강성희 목사(5기)의 저자소개에 이어 저자 김헌수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계속된 기념회는 민경배 박사(연세대 전 신과대학장)의 서평, 영문번역자 김영대 선교사의 인사, 이형규 장로(룬란출판사 대표)·김화인 목사(도서출판 조은 대표)의 발간사, 동문회장 강전우 목사(천국환송지도사 1기)·사업단장 이현노 장로(7기)의 인사, 시인 박재철 목사의 축시낭송 순으로 이어졌다.

백석문화대, 데이터마케팅코리아 이진형 대표 초청 특강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 창의융합교양교육원은 5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교내 백석홀 소강당에서 데이터마케팅코리아 이진형 대표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진형 대표는 한국지식경영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회사 설립 전에는 LG CNS 빅데이터 사업 리더로 활동하기도 했다.

'감으로 하는 마케팅은 끝났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이진형 대표는 "마케팅 부서가 돈 쓰는 부서가 아니라 돈 버는 부서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감으로 하는 마케팅이 아닌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약점, 강점 분석과 미래 예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의사결정은 소비자의 구매 예측은 물론 6개월 뒤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릴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 백석다빈치아카데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최소한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학생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강은 김성경 아나운서의 '대화의 신'(6월 4일), 칠십이초 성지환 대표의 '매우 트렌디한 회사의 매우 미련한 대표 이야기'(6월 11일) 등으로 이어진다.

민족복음화협의회 부흥지도자 세미나 열어

강사에 민경배 박사, 권정희 교수, 육수복 교수

민족복음화협의회(대표회장 육수복, 이하 민복협)는 지난 5월 25일(월) 오전부터 26일(화) 오후 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 소재 일문교회 예배실에서 강사 민경배 박사, 권정희 교수, 육수복 교수를 모시고 부흥지도자 세미나를 열었다.

25일 오전에는 본부장 한정수 목사의 '오리엔테이션' 후 제1강은 심재선 목사가 '부흥사의 윤리'에 대하여, 오후 제2강은 대표회장 육수복 목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흥운동'에 대하여, 제 일성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말씀이 우선이고, 은사는 차선"이다. "과거의 부흥운동과 현재의 부흥운동은 많은 차이가 있다"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말씀에 의한 성령운동과 기도에 의한 성령운동"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제3강은 본부장 한정수 목사가 '부흥사의 소명'에 대하여, 제4강은 권정희 목사가 '교회공동체 성장을 위한 성도의 변화'의 강의에서 부흥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 및 영성 함양의 시간을 가졌다.

26일 오전에는 사무총장 백만기 목사의 '예배'와 제5강은 민경배 박사가 '한국교회 부흥운동사'에 대하여, 제6강은 박재신 목사가 '부흥사의 부흥회 전략'에 대하여, 제7강은 한영태 목사가 '부흥사의 부흥 전도운동'에 대하여, 제8강은 장현운 목사가 '부흥사와 민족복음화'에 대하여 각각 강의했다.

27일(수) 오전에는 한국기독교 13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수료식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흥사들은 한국교회 부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수료예배는 본부장 한정수 목사의 사회아래 여성총재 손덕 목사가 대표로 기도하고 연수원장 김중남 목사가 훈시를 하며, 시인 박재천 목사의 축시 낭독에 이어서 연수원장 김중남 목사가 축도하고 증서를 수여했다.

민족복음화협의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고문 민경배 외 12명, ▲지도위원 권정희 외 40명, ▲이사 최남복, 한정수, 이귀범, 김헌수, 김진태, 김지혜, 손 덕, ▲대표총재 김진태, 상임총재 이귀범, 김중남, 이경욱, 여성총재 손 덕, 총재, 최남복 외 29명, 부총재, 정원석 외 19명, ▲대표회장 육수복, 여성회장, 김지혜, 회장, 박성기 외 47명, 부회장, 김용복 외 26명, ▲서기 박일녀, ▲회계 김선초, ▲본부장 한정수, ▲사무총장 백만기, 사무국장 노영애, ▲지역대표, △부산 박용한 △대전 정바울 △광주 정회인 △충남 김중남 △충북 이연풍 △경남 전경욱 △경북 김연경 △전남 정의행 △제주 박예수(* 계속 조직 중).

신간안내

어린이 천로역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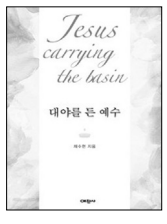
존 번연의 '천로역정'은 1678년에 출간되어 400년이 가깝도록 많은 이들의 영혼을 깨우치며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것부터 천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생동감 있게 전한다. '천로역정'은 어린이부터 신학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책으로 여겨져 왔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이에게는 전도의 도구로,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는 바른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안내서로서 가치를 가져왔다. 이번에 '어린이 천로역정'을 통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복음의 가치를 풀어내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 더욱 뜻 깊은 의미를 가진다.

저자 : 존 번연, 각색 장보영, 일러스트 공김경아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0-05-29 | (148*210)mm 112p | 판매가 : 11,000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삶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다면, 천정은 자매는 이 시대 부활의 증인이다. 2012년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은 그녀는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항암 부작용과 암종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했다. 이후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던 삶을 청산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1년 반 만에 암이 재발했지만, "암은 선물이며 죽음은 소망"임을 깨달으며 암 환자를 전도하는 사명자로 거듭났다. 2020년 5월 현재, 80차 항암치료로 걷는 것마저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그녀의 발걸음은 날마다 암 환우들과 그 가족을 향한다.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공감하고 위로할 뿐 아니라 부활 복음의 빛을 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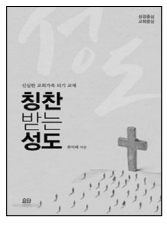
저자 : 천정은 | 출판사 : 규장 | 발행일 : 2020-05-25 | (128*188)mm 224p | 판매가 : 12,000원



대야를 든 예수

이 책은 천국에 대해 모르거나 오해해서 그곳을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과 천국과 예수에 대하여 아주 알기 쉽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천국이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일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에서는 어떤 삶을 살까?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알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호기심과 궁금증이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도 천국의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맘을 갖게 할 것이다. 이 글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나 전도대상자들에게 상쾌한 선물이 될 것이다.

저자 : 채수현 | 출판사 : 예찬사 | 발행일 : 2020-05-31 | 신국판 248p | 판매가 : 12,000원



칭찬 받는 성도

'칭찬받는 성도'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훈련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간된 신앙훈련 교재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삶과 또한 교회 멤버십으로서 알아야 할 성경의 기본 진리를 전체 14주 동안 주제별로 공부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이 교재는 개인의 자율적 공부, 목회자나 교회 리더의 강의와 질문을 중심으로 한 토론 등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룹에서 사용할 때는 충분한 예습이 필요하다.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예습을 통하여 얻은 교훈이나 적용사항을 중심으로 서로 나눈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 교재는 1997년 8월 초판 발간 이후 수차례 개정 출간을 거듭하면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

저자 : 류익태 | 출판사 : 요단출판사
발행일 : 2020-05-29 | (152*225)mm 312p | 판매가 : 13,000원

미래목회포럼 제16-2차 정기포럼

코로나 미래사회 변화와 언택트 목회선교 주제로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 목사, 이사장 오정호 목사)은 제16-2차 정기포럼을 오는 6월 11일(목) 오전 11시 종교감리교회(최이우 목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변화와 언택트 목회선교'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주제 발표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한세대 교수)이 맡아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래사회 변화의 핵심 특징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언택트 목회와 선교의 성경적 의미와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목회자들에게 코로나 이후 목회의 방향과 목회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모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제미래학회 회장의 직강으로 공신력을 확보한 포럼이란 점도 이번 포럼의 이슈다.

이상대 목사(종광본부장, 서광교회)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 포럼은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나 생활 거리두기로 인한 좌석배치 관계로 반드시 사전 예약 (100명으로 마감, 박병득 사무총장 010-8751-3453)을 해야 한다.

세기총, 다문화TV와 업무협약식 가져

대한민국이주민희망봉사단과 함께 사업과 행사 진행할 것

시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제8차 총회 후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5월 21일(목) 오후 4시에 세기총 회의실에서 다문화TV(대표이사 장영선 장로)와 세기총 임원 및 다문화TV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식은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와 다문화TV 대표이사 장영선 장로의 인사말이 있은 후, 사무총장이 업무협약서를 낭독하고, 각 대표가 공동협력 업무협약서에 각각 서명을 하여 협약서를 교환한 후, 악수례로 인사를 나누며 관계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많은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TV와 공동협력 업무 협약식을 갖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세기총의 주 사업인 다문화가정 부모초청 및 부부초청세미나와 관련하여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밝혔다.

다문화TV 대표이사 장연선 장로는 한국에서 다문화인이 300만을 넘는 시대에 다문화이주민 가정의 사회적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이주민 가정들을 위한 생활의 조력자로 화합의 장으로 다문화TV가 출발하였고 이들 가정의 청소년과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충격을 극소화하는 귀한 역할을 우리 다문화TV가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다문화가정 부모초청과 다문화가정 부부초청 세미나 사업을 해 온 세기총과 공동협력을 하게 된 것은 이주민 가정들에게 더 큰 희망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세기총은 "대한민국이주민희망봉사단"을 만들어 이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 해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업과 행사를 다문화TV와 같이 진행하게 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국컴패션 '2020 글로벌 목회자 세미나'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4개국 교회 목회자 대상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은 6월 4일(목)부터 25일(목)까지 온라인 '2020 컴패션 글로벌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한다.

'뉴노멀 시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컴패션은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교회의 목회적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더 나아가 나눔을 통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약 30분 간 웹세미나(웨비나·webina)로 진행된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한국 교회 및 미국, 호주, 캐나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담임목회자와 부목회자는 누구나 무료로 웹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한국컴패션 홈페이지와 대표번호(02-740-1000)를 통해 하면 된다.

세미나에는 디지털마케팅과 데이터연구, 선교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한다. 4일에는 박현우 대표(이노레드)와 지용근 대표(목회데이터연구소)가 '교회,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만나다', '교회 데이터로 읽다'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11일에는 미국 기독교 리서치 기업인 바나그룹 데이비드 킨나만 대표의 '교회, 뉴노멀을 준비하다' 강연이 준비돼 있다.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도입한 교회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18일에는 정통령 목사(김천 더 세움교회)와 김원진 목사(미국 뉴저지 예수반석교회)가 목회현장에서의 경험담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미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류용덕 한국컴패션 사역개발실장(목사)과 '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가 선교적 관점에서의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사랑하는 내 가정을 교회로 개척하게 하심

가족세트전도법을 배우면서 가족이 함께 천국가야 함에 있어서 크게 공감하는 저에게 저와 가족의 영, 혼, 육을 잘 돌보라고 가정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작년에 가정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겨우 요양원 내 교회에서 찬양전도사 사역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매우 안타깝게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에서의 예배가 폐쇄되고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림이 지속될 즈음 주님께서 또다시 어느 목사님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우리 가정에 교회를 개척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신학교 연구원에도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가정목회와 가정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부부가 한 영,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것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가족이 함께 존중하며 존경하며 이해하고 양보하고 돕고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의 소중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부터 이 말씀대로 살 때 믿음의 가정, 화평한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가족과 가정을 힘써 지키고 가족이 다 세트로 구원받고 꼭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서울 상일동 예수사랑교회
이선희 전도사 올림

동영상 :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코로나 속 장기기증 서약 동참 이어져

가수 미교, "저도 생명을 나누고 싶어요"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지난 5월 28일(목) 오후 2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가수 미교 씨의 장기기증 서약 및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속 생명나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유튜브 1000만뷰'의 주인공 가수 미교 씨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특별한 결심을 했다.

5월 28일, 오후 2시 본부 사무실에서 가수 미교 씨는 사후 각막기증과 뇌사 시 장기기증을 약속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최근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게 됐다는 미교 씨는 "치료를 하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절감하게 되는 요즘, 건강이 허락할 때 적극적으로 나누고,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후에도 계속해서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힌 미교 씨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패밀리)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장기기증을 약속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보를 알아보다 도너패밀리라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모든 기증인의 가족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했다. 또한 그 마음을 담아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을 격려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본인의 재능인 목소리를 통해 기증인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생명나눔을 널리 알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미교 씨는 현재 '미칠 듯 사랑을 하고'라는 곡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기견을 위해 콘서트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하는 등 나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명나눔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고 함께해 준 미교 씨에게 감사하다"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장기기증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는 미교 씨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생명나눔운동에 참여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복가정NGO 하이패밀리 코로나 예방 집콕몸놀이

행복가정NGO (사)하이패밀리가 "하이패밀리TV"를 유튜브에 개설하면서 첫 번째 콘텐츠로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집콕몸놀이"를 방영하고 있다. https://youtu.be/3-8E0dfpy-Y

최근 세이브더칠드런 스페인 지부는 전국 1천 800가구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어린이의 17%인 6명 중 1명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봉쇄조치로 집안에 갇혀 지내는 동안 우울증 증세를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은 더 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부모가 실직하거나 급여가 줄면서 경제상황이 더 열악해진데다 비좁은 집에 갇혀 지내면서 스트레스가 급증한 것이다.

급증하는 부모 스트레스는 아직 심리면역체계가 취약한 자녀 스트레스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스페인의 경우처럼, 스트레스를 해소할 출구조차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몸은 에너지 그 자체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몸과 마음이 건강한데 마음껏 뛰놀 수 없으니 에너지를 발산할 길이 없다. 사용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에너지는 차곡차곡 몸에 쌓이다가 찌증, 신경질, 화,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발전하기 십상이다. 문제는 스마트폰이다. 잠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치료제가 되면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 아이들을 위협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집콕으로 언텍트(비대면)문화가 확산되면서 성인들의 코로나 블루에 이어 아이들의 정신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집안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내는 심리방역사가 되어야 한다. 신체심리학자인 김향숙 공동대표는 말한다. "아이들의 입에 약을 털어 넣기 전에 함께 놀아주어야 합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예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500㎖ 20개들이 20,000원
500㎖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예하성부산신학교

(학장 한 명 점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yhsbs3927@hanmail.net

예하성광주신학교

(학장 최 정 식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 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예하성충남신학교

(학장 오 일 선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하성청주신학교

(학장 김 상 용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의 효능

1)페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찧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발견한 뒤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 십자가로 오게 하신 주님의 뜻을
진정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나는 죽고 주가 내 속에 살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난 진정 믿음으로 받았는가!
……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묵은해를 보내지도
새 아침을 맞이할 준비도 못하며 서성이고 있다.

이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너를 위해 죽은 나만 보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죽은 네 모습도 보거라"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내 생각 속으로
주님은 찾아와 내 귀에 속삭이시며
늘어진 내 손을 꼬~옥 잡아 주신다.

그 손 안에 쥐여 주신 말씀 한 귀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셨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후회스러운 한해를 보내야 하는 길목에서
새해를 받지 못하는 내게 이렇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어
위로하시며 새출발의 마음을 넣어주셨다.

'홀트학교' 장애학생들을 위한 온라인교육 심혈 기울여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현)에서 운영 중인 특수교육기관 '홀트학교' 선생님들이 장애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동영상 컨텐츠를 개발해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 전문 장비가 없음에도 동료 교사들과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장애학생들에게 학습자료로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해당 영상을 SNS(네이버 밴드)를 통해 확인하고,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를 통해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장애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흥미를 높인 학습자료로 제작됐고,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학습 효율 향상과 학부모 만족 모두를 높이고 있다.

홀트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 기기와 실물 교재 교구를 대여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의 장애아동 보육을 위해 긴급돌봄 2개 교실도 함께 운영 중이다. 또한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개학 일정에 따라 철저하게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

홀트학교는 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62년 특수교육을 시작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공과 과정까지 총 29개 학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180여 명의 지적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자립과 취업을 목표로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국악, 오케스트라, 합창, 스포츠클럽, 중도·중복장애학생 프로그램 등 예체능 특성화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사 설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5·24 대북 제재 조치(46명의 장병이 희생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에 대해 상응하는 무력 보복에 나서지 않기 위한 대안적 조치로 시행된 조치) 시행 10주년을 맞아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상실하는 조짐이 보여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5·24 조치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가 자진해서 실효 선언을 한 셈이다. 5·24 조치는 남북 교역과 대북 투자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 경제적 제재가 골자다. 6·25전쟁 이후 군이 가장 많이 희생된 북한 도발인 만큼 그 책임을 확실히 묻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해제를 위해선 북한의 시인·사과·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발뺌하며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해 왔다. 통일부 기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북측과의 접촉 신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이 그대로이고, 핵무기까지 앞세워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대공(對共) 방첩·수사 역량은 현저히 약화하고 있다. 심지어 대공 수사 기능을 경찰에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결국 종북 세력 및 북한 간첩이 맘 놓고 활동할 무대를 만들어주는 셈이 된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불안은 증폭되는 데 비해 정부의 안보 태세는 더욱 한심한 지경으로 내닫고 있다. 최전방 경계초소(GP) 기관총이 고장 난 줄도 모른 황당한 상황, 날씨를 핑계로 한 군사훈련 연기 등에 덧붙여 서해앞바다 경계가 무인지경처럼 뚫린 일까지 발생했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일리포 해변에 수상한 소형 보트가 방치된 것을 지난 5월 23일 주민이 신고했다. 길이 4m의 6인승 1.5t 급이었으며, 보트에서는 중국산 물품 등이 발견됐다고 한다. 하지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삼척항이 북한 목선에 뚫린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진짜 간첩선이거나 유사시 병력 침투 상황이었다면 최근 GP 피탄 사태와 마찬가지로 무방비로 당했을 것이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 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사 30:21) 크리스천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규명 책임있어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이 끝나고 40여 일이 지나서도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총선에서 부정 투·개표가 있었다는 의혹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 3·15부정선거의 뼈아픈 과거가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정선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다' 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어 오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명선거를 지향해 왔다.

그런데 경제와 정치에 있어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했다며 자타가 공인해왔던 우리나라에서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최대 의혹과 음모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 되고 국가 장래를 위하여 위험한 일이 아닐 수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행위와 그에 대한 결과는 신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며 그로 인한 민의(民意)는 어느 권력이나 조직도 훼손하거나 침해, 또는 왜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기도 하다.

자유롭고 공정한 투·개표가 담보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마는 것인데, 이는 후진국이라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그 실례는 근·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보아온 터이다. 현재 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은 무려 139건이나 된다. 이는 다른 선거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선거구 절반이 넘는 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투표용지를 보전해 달라는 신청이 73건이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 27건으로, 이 지역에 대한 투표용지에 보전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공명선거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선거를 이루어 내야 한다.

사회정의를 간절히 원하는 기독교계는 이 같은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염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며, 하루 속히 모든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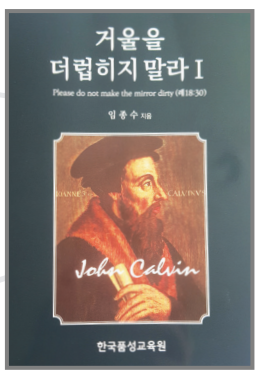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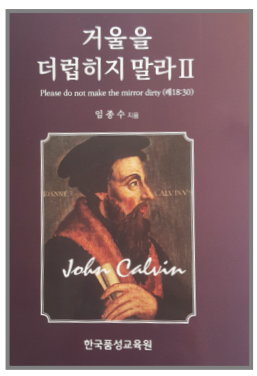
●연락 처 : 편집국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02)2675-5183 FAX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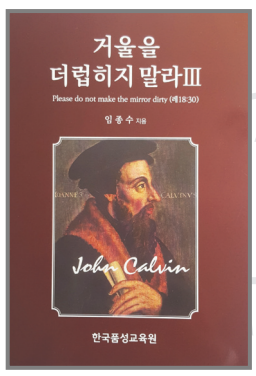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밭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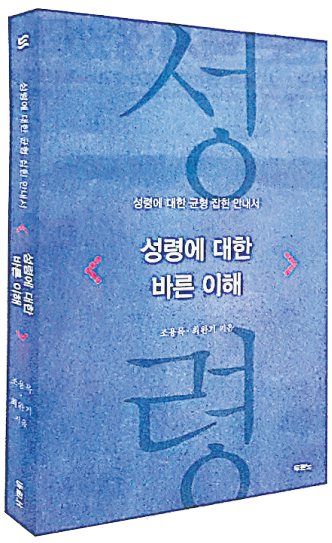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성 령 에 대 한 바 른 이 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우월주의, 번영신학으로 번져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최완기 목사 |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 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 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